



도, 기재부 설득 총력... 예산 확보 사활

김종훈 경제부지사
기재부 예산실 방문
주요 현안 반영 요청



16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한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사진 오른쪽)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주요 현안의 국가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 안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설득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16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기재부 예산실 간부들과 연이어 면담을 진행하며, 전북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2026년 국가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기재부의 2차 예산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반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날 김 부지사는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해 고용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연구개발예산과장, 정보통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주요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 농생명산업 그리고 미래산업 등 20건 사업에 대해 국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새만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 수목원 조성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축사 매입

사업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와 지원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농생명 산업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펩티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료작물 종자 생산기지 구축 등의 사업도 건의하였다.

또한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전기상용차용멀티-배터리 시스템

다중부하 평가기반 구축 △형상 정밀모니터링 바이오 프린팅 기술 고도화 △수용가 전기설비 원격점검 및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개발 △방사선 기반 소재정비 기술 혁신화 사업 △첨단 드론 스포츠 활성화와 지원센터 등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도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연수원, 디자인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북 디자인인

흥원 건립 등의 사업들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기재부를 설득해야 예산이 움직인다”며, “전북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 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완주군과 조건없이 만날 것”

우범기 전주시장, “통합 문제 누구라도 찾아 의견 들을 것”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전주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해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주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한 만큼, 완주군민 누구라도 찾아가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우범기 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과제이고 숙명”이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그 실마리를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 시장은 완주군수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제안했다.

이는 두 단체장이 어떠한 조건 없이 만나 함께 주민의 뜻을 공유하고 양 지역의 발전 방향을 찾자는 취지에서다.

우 시장은 또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초석으로 삼기 위해 행정 통합에 대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완주군민들을 직접 찾아가 어떤 형태로든 만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완주군민들이 갖는 불안 요소를 청취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설명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차담회를 열고 완주군에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회가 최종 합의한 105개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을 전폭 수용하는 한편, 추가적인 상생 방안을 고민해왔다.

우범기 시장은 “완주와 전주가 상생

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만남의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면서 “전주시는 완주군민과 전주시민, 모든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통합의 결실을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社 告

장편소설 연재

본사의 색선을 다양하게 편성해 독자들에게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과 함께, 자칫 건조하기 쉬운 지면에 소설을 게재해 조금 더 풍부한 읽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독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우리 신문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장편소설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 ▲ 작품 제목: '깡패와 굿패' (본보 경제부장 오상근 2024년작)
- ▲ 작품 주제 및 소재: 1950년대 고창지역에서 발생한 좌우익간의 투쟁한 아픔을 민초들의 전통음악이며 종교행위인 굿(농악)으로 현재와 과거를 오고가며 풀어가는 이야기.
- ▲ 연재기간 등
가. 주 3회 연재(월, 수, 금), 7월 18일자 연재 시작
나. 총 연재기간: 약 12개월에서 13개월

전주매일신문사

도 “정치적 중립 위반 사전 차단”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3단계 공직감찰' 본격 돌입

정치권 줄서기 · SNS 정치활동 등에 '무관용'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 출범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를 1년여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도는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단계별 공직감찰'을 시행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기강 해이, 소극행정 등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찰은 시기별·분야별·상황별 맞춤형 점검 방식으로 이뤄지며,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직감찰은 총 7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전담 감찰반이 분청과 직속기관, 14개 시군, 출연기관 등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단계는 복무 취약시기를 겨냥한 집중 감찰로, 하계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포함한 7월 14일부터 10월 1일,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포함한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다.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출장, 민원방치 등 복무규정 위반 여부와 함께 상비위, 음주소란, 갑질, 결직 등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까지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및 연말연시를 틈탄 사조적 모임, 정치인과의 사적 접촉, 편향적 언행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찰을 병행해 사전에 차단에 나선다.

2단계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수의계약 남용, 유언근무 악용, 생활 속 불공정과 소극행정 등을 주제로 한 기획감찰이 실시된다.

3단계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2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정치권 줄서기,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 홍보 등 중립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전방위 감찰이 이뤄진다. SNS 정치활동, 정당 행사 참석, 후보자 관련 게시물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치적 활동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기강 확립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며 “단계별 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 장수 누리파크

온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캠핑여행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65 장수누리파크 | 063-352-5660

NAVER